# 2015년 전남 GRDP 65조…2년 연속 증가

〈지역내총생산〉

## 농림어업 4조7058억 5.2% 증가…광업·제조업 1.4% 감소

## 세종시 제외 16개 시·도 중 9위…전국 GRDP의 4.2% 규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에도 전남지역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2015년 GRDP는 65조 45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62조 4567억원)보다 2조 9975억원(4.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9위였으며, 전국 GRDP(1565조원)의 4.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업 부문별로는 농림어업이 4조 705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반면, 광업·제조업은 1.4%가 감소한 19조 3941억원이었다.

기타 산업은 7.9% 증가한 32조 2125억원으로 각각 전체 규모의 8.4%, 34.4%, 57.2%를 차지했다.

**?** 지역내 총생산(GRDP)
시·도 내에 거주하는 각 경제 주체가 얼마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다. 보통 1년 단위로 측정한다.

시·군별로는 석유화학 중심지인 여수가 전체 규모의 29.4%인 19조 2656억원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광양이 15.2%인 9조 9461억원, 순천이 7.7%인 5조 410억원, 영암이 5.8%인 3조 7856억원 순이었다.

특히 나주의 경우 혁신도시로의 기업 이주와 지역 인구 유입으로 금융업과 부동산업이 증가한데 힘입어 5.7%인 3조 7293억원으로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차지했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집계된 2015년 시군 GRDP는 시군별 산업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한 통계 결과"라며 "앞으로 미래 일자리사업에 유용한 경제지표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에 '깨끗한 축산농장' 2022년까지 1천곳 조성

## 정부, 내년부터 가축 분뇨 악취 저감시설 개보수 등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전남에 '깨끗한 축산농장' 1000곳이 조성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고 가축 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을 오는 2022년까지 50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정받은 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와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에 가점이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9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장 1435개, HACCP 인증농장 781개, 전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46개 등 2281개 농장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0곳을 지정하고 내년까지 300곳, 2020년까지 700곳, 2022년까지 1천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평가 항목은 농장 조경·축사 정리정돈·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육밀도 등 13개이고,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특히 소는 축사 바닥 및 경관 중심으로, 돼지·닭은 축산 악취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정 후 5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판가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검찰은 가급적 11월 초·중순까지는 증인 신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연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NGO로 구성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ICAN 본부에서 베아트리스 핀(가운데) 등 ICAN 책임자들이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며 ICAN 로고가 담긴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리처드 H.세일러 노벨경제학상 수상…부문별 수상자 모두 결정

9일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를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결정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문학상과 평화상은 올해도 예외의 인물과 단체가 선정돼 화제를 낳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101개국 468개 연대 단체로 구성된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다.

ICAN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됐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비핵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의 성안을 주도했다. 이 협약은 핵무기의 전면폐기와 개발 금지를 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이 ICAN과 힘을 모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핵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 일본은 반대했다.

노벨문학상은 올해도 예상후보가 아닌 작가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일본계 영국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가 케냐의 응구기와 티옹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캐나나의 마가릿 애트우드 등을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대를 걸었던 한국의 고은 시인은 올해도 무위에 그쳤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이시구로는 다섯 살이 되던 해 영국으로 이주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형상화해 현대영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으로 떠올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리처드 H.세일러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됐다.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다.

노벨생리의학상은 생체시계를 연구한 3명의 미국인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제프리 홀·마이클 로스배시 브랜다이스대 교수와 마이클 영 록펠러대 교수가 '서캐디언 리듬'(24시간 주기리듬)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영예를 안았다.

노벨물리학상은 중력파 검출에 성공한 미국인 과학자 라이너 바이스, 배리 배리시, 킵 손 등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또한 노벨화학상은 '생화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자크 뒤보셰(스위스), 요아힘 프랑크(독일), 리처드 헨더슨(영국)에게 돌아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017 노벨상 수상자 명단**

| | |
|---|---|
| 평화상 |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
| 문학상 | 가즈오 이시구로 |
| 생리의학상(공동수상) | 제프리 홀·마이클 로스배시·마이클 영 |
| 물리학상(공동수상) | 라이너 바이스·배리 배리시·킵 손 |
| 화학상(공동수상) | 자크 뒤보셰·요아힘 프랑크·리처드 헨더슨 |
| 경제학상 | 리처드 H.세일러 |

# "미국이 전쟁 말할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 작가 한강 NYT에 기고문

작가 한강(사진)이 북미갈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에 기고문을 게재해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고 밝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한강이 미국 유력 일간지에 기고한 글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한국인들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강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 작가는 기고문의 시작을 은행에서 돈뭉치를 찾아오다가 절도 피해를 당한 노인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풀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불안한 나머지 은행에서 돈을 찾는 노인의 이야기는 6·25를 겪은 전쟁세대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한강은 "나는 그 노인과 달리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다"며 전쟁 후 단절된 남북의 실태와 한국인의 인식을 전했다. 작가는 "전후 세대들에게 북한이라고 알려진 나라는 때로 모종의 비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면서도 "물론 남한 사람들은 평양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이며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중이라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한강은 북한을 환상으로 보지 않지만, 비무장지대(DMZ)로 인해 섬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

또한 한 작가는 작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살아가는 한국인을 향한 외신들의 시선도 주목했다. 그는 "이런 고요함이 한국인들이 정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모두가 전쟁의 공포를 진실로 초월해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쌓인 긴장과 전율이 한국인들의 깊숙한 내면에 숨어 단조로운 대화 속에서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적었다. 이어 한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이런 물음은 우리에게 생생한 실체로서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하나만 안다"는 말에 대해, 한국인들이 뚜렷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고 반문했다. 한 작가는 "우리는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고,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한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한마음 공인중개사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무등산 충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융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 2017-132 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총 47기)

| 사업명 |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기수 | 비고 |
|---|---|---|---|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0-4 | 1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3 | 5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2-3 | 1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19 | 1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5 | 5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9 | 1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38 | 5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51-2 | 1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90-3 | 3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95-1 | 5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516-1 | 3 | |
|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산83-7 | 1 | |
|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58-11 | 1 | |
|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산26 | 2 | |
| |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76-8 | 3 | |
| |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7 | 2 | |
| |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184-15 | 2 | |
| |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 산57-6 | 1 | |
| |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282-19 | 2 | |
| |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35-1 | 1 | |
| | 강진군 강진읍 목리 179-1 | 1 | |
| 계 | | 47 | |

2. 개장사유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공사 추진
3. 공고기간 : 2017년 8월 8일~2017년 11월 10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이장업체에서 납골당에 안치(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044, 5176)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증명 서류(제적등본, 족보, 신고인 도장, 신분증 등)
8. 기타 : 상기 사업의 편입지번 내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